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찰스 “시크” 셰이버 박사 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1-2).

-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 쫓고 있을 때 -
-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도착한 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당시 높고 강한 여리고 성을 마주 했을 때 -
-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

그들은 모두 주안에서 도움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야한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민 14: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민 14:44-45).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미국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인류역사 가운데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기술, 의료, 경제, 교육, 과학, 등등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나라도 많겠지만, 이곳에서도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역시 기술적으로 발전한 세상의 사람이기에 얼마전 애플아이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핸드폰에게 “헤이 시리”라고 말만 해도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오늘과 내일의 날씨, 메이저리그 야구시즌 개막일, 플로리다 네이플스에서 캔사스시티까지 운전하기 가장 좋은 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철자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시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헤이 시리,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지?” 그런데 시리의 대답은 “아직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어느 과학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병을 치료할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직접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